

김영하의 소설 「옥수수와 나」 연구

이상우(한남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소설가의 저항과 정신적이고 내밀한 세계 |
| 2. 슬라보예 지젝의 '농담'과 「옥수수와 나」 | 5. 결론 |
| 3. 자본가의 음모와 민음의 물질화 | |

1. 서론

오늘날 짧은 시기인 반년, 혹은 일 년 사이에 과거 수백 년 동안 발전해왔던 이상과 이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증폭되고 교섭되면서 문화¹⁾의 전면에 부상했다. 거대서사²⁾가 사라진 자리에 개개인의 자의식들이 소왕국을 꿈꾸며 자기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사이버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동시적으로 문화에 폭발적으로 이바지하고 중심과 주변이 뒤바뀌며 지역과 중앙의 문화가 소통하면서 세상은 그 본래의 의미와 색깔을 규정하기가 매우 혼란스럽다. 모

*이 논문은 2013년도 한남대학교 교비연구비로 조성됨.

- 1) 전경수, 『문화의 이해』, 일지사, 1994, 71~76면. 문화를 규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문화는 상징적 교섭 작용이라는 시각이다.
- 2) 리오타르에 따르면, 탈근대는 '거대서사'의 종말로 설명된다. 거대서사란 모든 삶과 사물의 총체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해석 혹은 서사이다. 가장 대표적인 거대서사 중 하나가 마르크스주의이다. 슬라보예 지젝 지음, 박정수 옮김,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103면.

호한 표현들, 그리고 불연속적인 인물의 행동들, 변용된 스토리들 그리고 세계와 세계를 잇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된다.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이 시대에 소설연구도 매우 혼란스럽고 따라잡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가장 문화현상을³⁾ 흡수하기 적절한 소설과 영화는 종합매체로서 충격을 적절하게 흡수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조리한 세계를 반영하기도 하고 인간의 의식에 생산된 혼란스러운 기표를 상징화하며, 합법성을 위기로 몰아넣고 비웃는 자아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문화생산 장르가 되었다.

따라서 모든 소설 텍스트는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혼합하여 새로운 문화창조의 장으로서 해체와 상호텍스트성⁴⁾을 바탕으로 문화 전면에 창조적 텍스트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김영하의 소설 『옥수수와 나』는 다양한 문화적 상징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지젝의 사유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물신화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유가 지배받는 현실을 인물들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슬라보예 지젝의 ‘농담’과 「옥수수와 나」

슬라보예 지젝은 그의 저서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에서 믿음의 객관성을 설명한다. 그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지식은 외적인 것이라는 통상적인 테제에 반하여 오히려 믿음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외적인 것이며, 사람들의 실생활의 실제 절차 속에 구현⁵⁾된다고 말한다.

(event1) 한 정신병원에 철석같이 스스로를 옥수수라 믿는 남자가 있었다.

3)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5면. 문학을 역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라야 문학의 구체상이 문제로 떠오른은 물론 문학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정당한 자리가 확보된다

4) 상호텍스트성은 동질감과 이질감, 이어 쓰기와 고쳐 쓰기, 계속성과 순간성이다. 이는 문화적 환경에서 새로운 인식방법을 수립하는 전략이라 보여진다. 즉 은유와 환유적 관계를 통해서 문화를 생산하는 창조적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빈센트 B 라이치(권택영 역), 『해체비평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0, 42~49면. 궁극적으로 해체론은 토대의 전복이며 혼적 쫓기이다.

5) 토니 마이어스 지음, 박정수 옮김, 『지젝,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엘피, 2008. 135면.

(e2) 오랜 치료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옥수수가 아니라는 것을 겨우 납득한 이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귀가 조치되었다. 그러나 며칠 되지도 않아 혼비백산 병원으로 되돌아왔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의사가 물었다.

(e3)“닭들이 나를 자꾸 쫓아다닙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환자는 몸을 떨며 아직도 닭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면서 연신 뒤를 돌아보았다. 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켰다.

“선생님은 옥수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이제 그거 아시잖아요?”

환자는 말했다.

(e4) “글쎄, 저야 알지요. 하지만 닭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김영하의 소설 『옥수수와 나』는 지젝의 유명한 ‘농담’을 이어 쓰고 있다.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젝의 ‘믿음의 객관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믿음은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물질에 의해서 믿음이 객관화되며 물질화 된다는 것이다. 티벳의 기도하는 ‘물레’와 유사하다고 했다. 즉 물레 자체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 자신이 물레를 매개로 기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유지되고 객관화된다. 이는 주관적인 믿음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타자의 인정을 통한 객관화되고 물질화될 때 가능한 것이다. 진정성이 손상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전이되고 확인될 때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은 사회의 공인된 행위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도의 진실성은 (통을 돌리는)내 행위 속에 있지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믿음의 객관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명한 농담에 나오는 자신을 옥수수라 생각했던 멍청이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6)

김영하는 소설, 『옥수수와 나』는 믿음의 객관성을 갖지 못한 바보의 농담을 작품의 서두와 끝에 이어 쓰고 있다. ‘농담’ 속의 바보⁷⁾는 자신의 세계에

6)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인간사랑, 2002, 73~75면.

7) 슬라보예 지젝, 『환상의 돌림병』, 김종주 옮김, 인간사랑, 2002, 96면. 바보는 그는 현존하는 질서를 “뒤집어엮기”로 정해진 놀이 방식에 대한 보충물로서 작용한다. 지젝은 바보와 건달을 구별하는데 바보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고 건달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다. 『옥수수와 나』에서는 소설가인 박만수가 바보이고 출판사 사장이 건달이다.

빠져 주변적이고 타자의 생각을 자기화하여 욕망으로 객관화하지 못할 때 인간들이 어떻게 이데올로기적이고 상징 효과가 있는 현실에서 왜곡되는지 『옥수수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옥수수과 나』는 옥수수와 닭의 이분법적 인물이 제시되는데 박만수와 출판사 사장의 행동은 심층적으로 볼 때나 서사 단계에서도 대립적이다. 옥수수는 식물성이며 동물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곧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는 세계가 추동하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리비도의 대체물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대립적인 닭은 상징계의 법으로서 자본주의를 표상한다. 닭은 거대한 입을 가진 자로서 자본가의 탐욕을 표상한다. 생김을 통하여 끝없이 옥수수를 탐한다는 점에서도 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옥수수는 결국 닭에게 끝없이 쫓기는 신세이며 닭은 옥수수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산되는지 예측하고 투입하여 이득을 추구하는 권력의 생산자이다. 닭들은 오늘날 자본가이다. 지역과 소자본을 착취하는 자본가이며 출판사 사장이다. 이러한 생산구조에 옥수수는 생산과 유통구조에 저항하고 순수한 주체로서의 정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event1)은 옥수수라 믿는 상태는 오인의 단계로서 상상계적 인물로 생각된다. 자신이 스스로 옥수수라 믿는 것이다. 옥수수라 무엇일까? 상상계는 자아와 세계가 완벽하게 일치하여 대상을 오인해 자신이라고 믿는 단계로 생각한다. 즉 어머니를 자신과 동일시한 아들은 완벽한 세계에 갇힌 동물이다. 이는 자아가 우리의 바깥의 이미지 위에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옥수수라고 스스로 믿는 것은 자아가 외부에 한 이미지를 동일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상황은 현실감이 떨어지고 외부의 자극들은 모두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편집증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지식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자신이 믿고 판단하고 생각한 것이 검증을 통하지 않고 세상의 진실이라고 믿는 상태라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상징계로 이입되면 자아는 분열된 주체가 된다.

(event2)는 분리의 단계이다. 상상계적인 인물에서 아버지의 법과 언어의 세계로 진입하여 즉 의사의 법은 상징적인 개입이고 분리의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상징계의 질서에 주체로서의 자신을 보게 된다. 상상계에서 나는 어찌면 자아로서 완벽한 한 몸으로 이루어졌지만 분리된 옥

수수와 나는 이제 상징적 질서에 주체로서만 의미가 있다. 이때의 주체는 자신이 옥수수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세계를 자기화할 수 있다. 그것만이 상징계에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 분열된 주체는 늘 타자의 욕망을 자기화하여 욕망하는 주체로 살아간다.

(event3)은 그러나 닭들이 옥수수인 줄 알고 자꾸 쫓아온다는 생각에 잡힌 주체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태를 상징적인 세계와 상상계적 세계를 완벽하게 분리시켜진 상태가 아니라 서로 넘나들고 있는 불안정한 단계로 생각된다. 이러한 단계는 결국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회의 법과 동일시해서 극복해야만 함에도 극복하지 못하고 상상계에 안주하려는 의미가 더 크다. 사회적 주체로서 일상현실에서 생활은 매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실재계는 상상계와 상징계는 피비우스 띠처럼 이어져 있으며 어떤 사안에 따라 상상계와 상징계를 넘나들면서 현실에서 실재계를 만나고 그 틈입을 찾아 상징계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할 주체를 만나야 한다. 그러나 (event3)는 실재계에서 강압된 이데올로기를 해체할 주체로서 역할보다 인물 자신은 아직도 오인의 단계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과 느끼고 싶은 것만 진실인 것처럼 믿고 판단하므로 일정수준의 편집증 환자이다. 정상적인 환경에 주체가 놓이면 종합적인 판단이 왜곡된다.

(event4)는 여기에서 상징계의 질서는 대타자에 의해 구동되며 유지되는 공간이고 현실⁸⁾이라 볼 수 있다. 이 현실은 생명력을 부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법에 주체가 편입되어야만 세계의 물상들을 뚜렷하게 확인하고 변별하고 의미를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닭에 의해서 아직도 쫓기고 있는 상상계적 공간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아와 주체는 혼란을 겪게 되고 그에 따라 닭은 공포의 대상이요 상징적인 법과 아버지의 법이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이 위협적인 존재는 곧 옥수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되며 또한 상상계에서 극복하지 못한 자아의 소멸 장소이며 주체가 되기 전의 단계이다.

(el~e4)는 김영하가 박만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믿음의 상태로 객관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극히 주관적인 믿음은 객관적인 상관물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바보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8) 현실은 허구 즉 어떤 것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는 주체에 의해 '정립된' 어떤 것으로 이해한다. <징후를 즐겨라!>, 108면.

만 타자들은 인간이라기보다 식물인 옥수수라고 물질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옥수수가 아닌 자신도 그들의 인식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하게 잘 짜인 세계에 갇혀버린 억압된 상태에 있다. 즉 자신은 자신이 옥수수가 아닌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타자들은 자신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환언해서 이데올로기가 구동되는 하나의 질서 속에 즉 메커니즘의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상황을 연출한 외부적인 요인이 강력한 억압과 위협적인 타자에 의해 주체가 왜곡되어가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9)타자의 욕망을 통해서 나의 욕망이 생성되고 또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인 것이다. 인간들이 타자의 욕망에 자신의 욕망을 종속시킨다. 결국 옥수수가 되기 위해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려는 욕망 속에 채워지지 않은 조건 즉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불행에 빠진 ‘바보’인 것이다. 내가 불행해진 것은 타자의 시선을 욕망해서 주체로서 세계에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체로서의 상태보다 자아의 세계에 안주하여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오인의 상태는 지속된다. 또한, 상징계에서는 타자의 시선과 욕망을 받아들일지 거부하는 자이다. 타자를 위해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객관성을 확보할 ‘물레’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믿음의 세계에서 편집증적 오인 혹은 환상의 단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이는 자기 의견이 곧 절대적 믿음이며 절대적 진실로 착각하여 현실에 안주할 때 누구라도 착취의 구조에 빠지는 것이다.

3. 자본가의 음모와 믿음의 물질화

믿음의 객관성을 가진 자들은 상징계¹⁰⁾에서 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 그들은 숭고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 숭고하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요 믿음

9) 토니 마이어스 지음, 박정수 옮김,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10면.

10) 슬라보예 지젝 지음, 이수련 역, 앞의 책, 73면. 상징계의 믿음은 즉 실제 사회활동 속에서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믿음은 사회 현실은 규제하는 환상을 지탱한다.

이다. 이러한 믿음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에서 삶을 유지하는 원리로 보인다. 돈과 권력이 그렇고 자본, 종교 그리고 언어이다. 자본주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자만이 자본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자본이 상징적인 구조와 상징화된 체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라야만 가능하다.

김영하의 『옥수수과 나』에서 자본가인 출판사 사장은 잘 짜인 음모이며 플롯을 구상한다. 그의 구상은 곧 소설가인 박만수에 대한 조직적 투자를 통해 그가 소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출판사 사장은 투자은행 중의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사에서 OPM(Other People's Money)으로서 남의 돈으로 돈을 버는 능력을 갖춘 회사에서 최고 중의 최고였으며, 골드만 삭스사의 자체 자금을 굴리는 인원 중의 하나로 가장 신뢰하는 직원 중 하나였다. 세계의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여 5년 동안 30억을 벌은 자본주의의 생리를 아는 자이다. 즉 자본으로 자본을 생산할 수 있는 자이다. 자본의 흐름을 알고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화를 통하여 체제의 유지 시키며, 재화를 통한 생산성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아는 자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 질서를 만드는 자이며 아버지의 법을 세우고 상징적 남근으로서 언어와 법의 중심에 있는 자이기도 하다.

그는 박만수를 출판사의 최고의 인적자원이라 생각한다. 그는 모든 기업의 가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신념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그가 추구한 것은 완벽한 출판라인이다. 출판사에서 소설을 출판하기 위해 작가를 물색하고 작가로 하여금 소설을 생산하게 유도하며 생산된 소설은 생산가치보다 교환가치에 중심을 둔다.

그의 치밀한 플롯은 곧 음모이다. 좋은 글은 개인의 일상에서 나오지 않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대척점에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인물이다. 그의 생각은 곧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믿음을 생산하는 물질적 형태로 환원시킨 것이다. 그는 주체가 세계에 대하여 갖는 상징적인 의미관계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이익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가장 현명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다. 자본주의에서 권력이란 바로 자본이며 재화이다. 믿음의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한 행동을 통해서 재화의 흐름을 선점함으로써 권력을 생산하고 유지하여 자본주의 세계의 생

리를 연장하려는 자이다.

박만수의 글쓰기는 출판사 사장의 기획과 연출이 소설의 플롯이 되며, 작품을 생산하는 것은 곧 철저한 관리와 투자에 의한 소설 쓰기의 결과물인 것이다. 사장의 글쓰기는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몇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투자한 플롯으로 상품이 완성된다.

“일단 최후통첩을 하고 반응이 없으면 소송하겠대.”

“뭐? 소송? 그래서 당신을 보낸 거야? 최후 통첩하라고? 우리가 한때 한이불 덮고 자던 사이라는 걸 혹시 모르고 있나?”

“알아 미국에서는 그딴 거 신경 안 쓰나 봐 아니면 이게 더 잘 먹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든지.”-중략-

“종이 말로는, 일부러 등록금 썬 데만 골라서 보냈대.”

“그럼 스탠퍼드나 뭐 그런 비싼 사립도 갈 수 있었다는 거야?”

“아빠가 좀 믿음직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데도 지원했을 거야.”

“왜 모든 게 내 탓으로 귀결되는 거야?”

출판사 사장은 불량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소설가 박만수와 가장 친한 전처를 투입한다. 그녀의 접근은 출판사 사장의 철저하게 계산된 접근이며 음모의 시작이다. 박만수는 소설을 쓴다는 핑계로 출판사에서 선금을 받아 쓴 약성채권자이다. 그러나 소설가 박만수는 13권의 책을 냈지만, 지금은 글을 쓰는 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자이다. 그에게 출판사 사장이 이혼한 아내를 보내 출판사의 상황이 바뀐 것과 선금을 받은 작가들은 글을 쓰든지 아니면 배상을 하든지 결정을 강요한다. 이러한 강요는 일차적인 아내가 박만수에게 접근하여 소설을 쓰기를 강요한다. 돈을 받고 소설을 쓰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경고한다. 그러나 작가인 박만수가 수지의 말에 귀담아듣지 않자 전략을 변경하여 박만수의 인간적인 면에 호소한다. 현실적으로 소설을 쓰지 않을 경우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딸의 유학은 어렵게 되며, 중국에는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빠로 전략할 수밖에 없으니 소설을 써야만 된다는 논리로 설득한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무능을 극복하는 길은 글을 쓰는 것이고 아내의 논리를 받아들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출판사 사장이 의도한 음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박만수는 세계에 대한 자기 중심적 관찰력을 바탕으로 현실과 유리된 체 무능한 룸펜으로서 존재감을 상실한 자이다. 그러한 그를 현실로 복귀시키는 것은 글쓰기이고 글을 쓸 때 그의 존재감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수지의 설득은 곧 자본가인 출판사 사장이 설치해 놓은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출판사 사장과 박만수는 닭과 옥수수로 착취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내 책에 대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작가라고 자기가 쓴 책의 내용을 전부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사장과 대화는 유독 많이 엇갈렸다. 내 책의 여백에 자기 나름의 대안적 스토리를 자꾸 적어 넣다 보니 마치 그것이 원래 스토리였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다음은 사장과 박만수의 만남이다. 사장은 박만수의 책 열세 권이나 되는 것을 모두 초판으로 가지고 있었다. 책의 갈피갈피마다 대안적 스토리를 적어 넣은 체 간직하고 있었다. 기업의 가치는 사람에게 나온다는 말은 박만수의 작가적 역량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곧 출판사 사장이 호명하는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그는 지책이 말하는 믿음의 객관적인 대상이 된 것이다. 즉 기도하는 물레와 같은 것이다. 이미 사장은 박만수의 13권이나 되는 책에 자본가의 음모를 적어 넣어 사장 나름의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자이다. 그는 박만수의 책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대안적 스토리를 만들 놓았다. 예술성과 원석에 가까운 박만수의 소설은 이미 자본가인 사장에 의해서 상품가치로 인정받고 투자에 대한 프로젝트가 확보된 것이다. 박만수의 소설에 자본가의 투자논리가 겹쳐지면 박만수의 소설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내가 만들어 낸 주인공이 나를 끌고 다녔다.

“나는 열흘 동안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격렬한 섹스와 광적인 집필. 오직 그것뿐이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질편하게 었었다. 그리고는 열흘 만에

처음으로 눈을 붙였다.”

박만수의 성적인 관심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상세하게 파악한 출판사사장은 마지막으로 별거중인 아내 박영선을 투입함으로써 음모의 마지막 부분을 치밀하게 짜 맞추었다. 음모는 자본가인 출판사 사장이 꾸미고 플롯은 소설가인 박만수가 구성하는 이중적인 구성이 된 것이다. 소설가인 박만수의 글 쓰기는 지젝이 말하는 ‘바보’에 해당한다. 출판사 사장은 건달이다. 하나는 속이는 자이고 하나는 속는 자이다. 박만수는 ‘엑스터시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작품을 창작할 뿐이다. 다른 플롯을 가진 사장은 작품생산을 위해 정확한 투입(박영선)을 함으로써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작품생산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의 음모한 대로 말이다.

음모는 소설가에겐 플롯이고 범죄자에겐 음모로 해석된다. 다국적 출판사의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문화가 조직적으로 생산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일상이 거대자본에 편입되면서 개인 혹은 지역의 정체성은 변질되고 자본의 현실(상징계)적 질서에 편입되어 예술이라는 상상계적 질서가 자본으로 생산된 상품으로 판매되어 경제 논리에 왜곡된 채 편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논리를 출판사 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옥수수와 나』는 예술가들의 생산과 소비의 예술품과 소설이 물질화되어가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다. 생산된 것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자본가에 의해서 강탈당하는 모습이며 또 자본가는 생산성이 있는 예술가를 조종하여 생산성(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를 가미할 때 생산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가치가 클수록 높아지지만 사용가치를 결정하고 생산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가의 투자에 대한 냉철한 상품생산이고 고도의 자본논리를 통한 의미결정 과정을 통해서만이 오늘날 사회가 왜곡된 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노동자인 작가는 창작할 뿐 가치를 결정할 때 자연적 유통에 맡겨진다. 그러나 자본가가 개입될 때는 왜곡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의 가치는 자본가의 손을 통해 결정된다. 예술가인 작가 박만수가 창작한 예술품은 결국 자본가의 손에 의해서 그 효용성이 결정되고 소비된다는 것이다. 결국 박만수는 ‘물레’이며 자본가의 객관적 믿음의 실체인 것이다.

4. 소설가의 저항과 정신적이고 내밀한 세계

오늘날의 사회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믿음의 환상이 구동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많은(순수하고 아름답고 인간적이고 예술적인)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숭고하게 자리를 잡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시인·소설가들은 잠재적 무의식을 표출함으로써 현실에서 꿈꾸는 자이다. 현실에서 자기중심적 백일몽의 환상을 받아들이도록 독자에게 유혹하지만 그러한 환상을 정확하게 읽어 줄 독자를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표현은 결국 상상계적 자아와 대상 간의 완벽한 일치로서 표현하지만 그것은 현실의 불합리하고 억압된 진실을 만날 수밖에 없다. 상상계적인 질서 속에서 발현되는 순수는 삶의 전체에 미치는 리비도이지만 또한 그 증상은 정신병적인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다

지젝의 ‘농담’에서 바보는 옥수수라 생각하는 자이지만 김영하의 소설 『옥수수와 나』에서는 소설가인 박만수이다. 그는 13권씩 쓴 박만수는 작가로서 스스로 옥수수라 생각했다. 스스로 옥수수라는 것은 그의 심리에 세계와 자아가 완벽하게 붙어 있어서 분리의 상태를 갖지 못함으로써 오는 정신병의 단계이다. 즉 오인단계로서 신경증 환자이며 더 나아가 편집증 증세까지 보인다. 그 단계는 흠집이 없는 이성, 혹은 현실원칙만 지키는 원칙주의자라는 의식체계를 고집한다. 배우자나 연인, 그리고 타인들이 부정한 관계에 있을 때 원칙을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자아와 상황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주체의 무의식적 소망에 대한 금욕은 누적된 리비도로 인해 생겨나는 신경증이다. 그는 오직 섹스의 억압 상태에 있다. 이혼은 성의 거부이며 또한 리비도 방출 제한이라는 신경증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아내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심은 자주 한다.

신경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박만수¹¹⁾는 자신이 관찰하여 포착한 감각의 파

11) S. 리먼 케넌, 『소설의 시학』, 최상규역, 에림기획, 2003. 146면. <옥수수와 나>는 서술자-초점화자의 단일한 지배적 관점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서술자-초점화자의 관념형태는 보통 권위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독자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해 그의 시각과 서술을 옳은 것으로 믿다가 마지막에서 반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옥수수와 나』는 독자를 흡인하는 일인칭 서술을 통해서 독자를 아주 가깝게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서 전복하는 형식의 글이다. 독자는 이제껏 작가가 서술자로서 인물로서 사건을 지각하고 관념적인 세계까지 모두 동조하도록 하다가 마지막에 반전을 준비한다.

편들을 기반으로 믿음의 체계를 구축한 인간의 전형이다. 자신이 본 것이 옳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았을 뿐이다¹²⁾. 지젝의 ‘농담’에서 정신병원은 현실세계이고 옥수수는 곧 예술가로서 작품을 생산했을 때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상계에서 오인된 결과인데 어머니의 욕망을 욕망한 결과 옥수수가 나이고 내가 옥수수인 욕망의 충족이 일어난다.

여기서 박만수의 욕망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그가 믿고 있는 사고체계는 매우 관념적이다. 사실이 진실로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믿음의 객관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박만수는 내밀하고 정신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세계를 언어화한다. 그의 주관적 믿음 자체는 곧 사실이며 진실을 바탕으로 믿고 싶은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박만수의 ‘무의식은 언어로 구조화’된 것처럼 그의 무의식 세계는 결코 상징계의 언어적 현실에서 얻어진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대상을 바탕으로 세계를 개념화하지 않는다. 세계를 자기중심적이며, 편집증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라 볼 수 있다.

『옥수수와 나』에서 특히 박만수는 섹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섹스는 곧 욕망이고 이 욕망은 현실적으로 강박되어 억압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위장한 행위로 혹은 전치의 상태로 발전한다. 그것은 친구들의 섹스파트너와 섹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박만수는 그의 친구들이 모두 그의 관찰의 대상이 되고 연구의 대상이 된다. “라캉에 의하면 무의식은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명제는 곧 박만수의 정신구조가 금욕에 의한 리비도의 방출제한에 근거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 글을 써야한다는 강박은 심리적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증되자 박만수의 심리상태는 육체적인 결함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배설의 욕구에 장애가 온 것이다.

“섹스 파트너와 뭔가를 교환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 나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교환하다니? 뭘? 전쟁 당사국들이 전쟁을 교환하지 않듯이, 섹스 파트너들끼리 섹스를 교환하지 않아. 나와 그녀는 뭔가를 교환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기 위해 만나는 거야.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함께 소비하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낭비하는 것은 바로 섹스라는 관념이야.” “나는 섹스

12) 장두영, <작품론, <옥수수와나>의 작품세계>, 『이상 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12, 137면.

를 한다'라는 무거운 관념을, 덤프 트럭이 모래를 쏟아놓듯 훌훌 던져버리고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박만수는 그의 첫 번째 친구 철학교수의 연애관에 대해 비판한다. 섹스는
교환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이다. 교환일 때는 상호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
고받는 섹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철학은 섹스를 관념의 소비로 본다. 소비
는 관념이 차오를 때 함께 상품을 사는 기쁨을 얻듯이 관념을 소비함으로써
행복을 얻는 것이다. 그는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욕망을 충족시
키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했을 때 일상의
삶에서 방출 장애를 가져온다.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철학은 섹스가 교환일 때 오히려 변질된다는 것이다.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의
동등한 상태에서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다. 애정을 주는 것과 받는 것
은 모두 환상에 불과할 뿐이고 단지 섹스를 한다는 것은 서로 만나서 생리적
욕구를 소비함으로써 행복을 얻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사실 우리는 서로를 별명으로 불러. 개한테 내가 붙여준 별명이 백 개도 넘을
거야. 만날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든. 무의미할수록 좋아. ‘나의 다리
부러진 의자’라고 부를 때도 있고 ‘매우 공허한 쥘빵’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

박만수의 또 다른 친구 카페의 섹스는 매우 생산적이다. 카페는 최전방에
근무하는 여군 장교와 섹스를 한다. 그녀는 카페를 만날 때 군복으로 갈아입
고 후방으로 나와서 접선하는 섹스를 한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그를 만나러
오는 여자를 사랑하는 카페는 철저하게 애정이라는 고정된 의미를 지속하거
나 표현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그들의 기분에 따라 그들을 삶의 방식이나
섹스의 방식이 새롭게 표현된다. 섹스보다 둘 사이의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섹스 파트너를 늘 새롭게 창조한다.

나는 수지와 사장은 어떤 체위로 섹스를 할까 생각하며 삼청동의
밤길을 걸어 내려왔다.

박만수의 일련의 관심과 비판은 그의 내면에 발현된 무의식의 세계가 작품

전체에 기표처럼 제시되고 있다. 박만수의 욕망은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막혀 있고 그가 추구하는 것은 육체노동자로서 현실 속에서 정액을 통한 섹스이지만 그에게 있어 현실은 갖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박만수가 가진 것은 주변에 대한 섹스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그가 현실에서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정액을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을 욕망한다. 강박에 의한 억압은 섹스의 장애였고 그러한 장애는 남들의 섹스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언어로 구조화된 무의식은 기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곧 수지와 출판사 사장과의 섹스, 철학과 카페의 부인이 관념을 소비하는 섹스, 친구 카페가 만나는 여군 장교와 프라이팬 섹스 등은 박만수의 분열된 주체이다. 그의 무의식은 현실에 충족되지 않는 섹스에 대한 망상과 환상이 섹스에 대한 기표를 생산한다. 이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타자들의 섹스에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세계에 대한 갈증을 왜곡하고 있다.

“감히 같은 인간의 몸이라고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신이 내 옆에 누워 있었다. 나는 창조주의 전능함과 한없는 사랑에 잠시 경배를 드린 후,”

“신의 선물은 아직도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한 줄도 쓰지 못한 소설을 위해 빈 워드창을 띄웠다. 나는 자판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내가 한 일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에 작은 뇌가 달린 것 같았다. 미친 듯이 쓴다. 문장들이 비처럼 쏟아져내리기 시작했다.”

“음란하고도 난해하면서 매우 실험적인 이 소설의 서두는 주인공 남자가 뉴욕의 차이나타운에 머물며 기괴한 성적 모험을 시작하는 장면이었다.”

“나는 다른 세계. 그러니까 뉴욕도 서울도 아닌, 그 모든 곳이 중간. 세계의 빈틈. 영혼과 육신의 메자닌. 문자와 세계의 문턱에 서 있었다.”

“모든 창작자들이 애타게 찾아 헤맨다는 에피파니의 순간일지도 몰랐다. 뮤즈가 강립한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작가가 됐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박만수가 맨해튼에 도착해서 박영선이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그의 욕망은 에피파니의 상태가 된다. 무의식은 유사성과 인접성에 의해서 의식화 된다고

했는데 즉 환유와 은유적인 시공을 통해서 실재계의 감정으로 터져 나온 결과이다. 즉 박만수는 ‘섹스를 한다’라는 은유적인 반복과 환유적인 인접성을 바탕으로 이혼한 아내 수지와 사장의 섹스, 철학교수와 카페의 부인의 관념을 소비하는 섹스, 카페와 여군 간의 반복과 변형의 섹스를 통해서 무의식을 구조화하고 있다.

지젝은 운전을 하는 동안 우리는 상상계의 일부가 되며, 그로 인해 주체로서의 우리가 사라진다. 그러다 갑자기 반대 방향에서 오던 트럭이 차선을 넘어 내 쪽으로 다가올 때, 실제의 침입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지, 핸들을 옆으로 돌릴지 결정해야 하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주체로서 다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젝은 주체는 상징계와 실제 사이의 경계, 혹은 그 사이에서 출현한다. 따라서 주체는 상징계와 실재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할 때만 주체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¹³⁾

박만수가 박영선을 만난 것은 그의 무의식의 시니피앙이 실재계와 대면하는 것이고 이럴 때만이 그는 주체로서 판단할 수 있다. 박만수는 박영선을 만나면서 억압된 신경증과 편집증은 모두 사라지고 섹스를 통해서 그동안 강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가 그동안 작품을 쓸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섹스라는 억압된 장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박만수는 박영선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잠재된 의식 즉 무의식에서 욕망했던 것이 해소됨으로써 작가로서 복귀가 가능했던 것이다. 박만수가 이제껏 억압되었던 것은 현실에서 섹스에 대한 억압이 글쓰기를 좌절시켰던 것이다. 그의 욕망은 섹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섹스는 곧 인간을 움직이는 에너지인 리비도이다. 리비도의 방출은 곧 억압된 자아의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가 지금껏 막혔던 정신의 방출인 소설쓰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가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를 다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세계는 다시 아름다운 세계로 바뀌어 간다. 섹스에 대한 관심은 결국 글쓰기의 근본적인 욕망의 추구였으며 섹스만이 세계의 모든 글쓰기의 에너지라는 환상에 도달한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욕망인 리비도적인 에너지는 자신의 무의식속에서는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계에 구동되지 않고 억압되어버린 상태에서 그는 작가로서 능력을 모두 상실한 채 살아

13) 토니마이어스 지음, 박정수 옮김, 위의 책, 64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박영선이라는 이상적인 대상을 만남으로써 에 피파니의 상태의 절대적인 이상적 자아와의 만남은 상징적 현실을 거부하고 상상계적인 편집증적인 고착상태를 고수하면서 세계를 이상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5. 결론

김영하는 소설, 『옥수수과 나』는 지젝의 ‘농담’을 작품의 서두와 끝에 이어 쓰고 있다. 『옥수수과 나』는 옥수수와 닭의 관계는 식물성과 동물성의 대립이다. 옥수수는 에너지이고 이 에너지를 통하여 세계는 유지되는 것이다. 이는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는 리비도의 대체물이다. 닭은 상징계의 법으로서 자본의 허구를 표상한다. 닭은 거대한 입을 가진 자로서 자본가의 탐욕으로 볼 수 있다.

출판사 사장을 통하여 다국적 출판사의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문화가 조직적으로 생산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일상이 거대자본에 편입되면서 개인 혹은 지역의 정체성은 변질되고 자본의 현실(상징계)적 질서에 편입된 현실이다. 소설문화 역시 자본으로 생산된 상품으로 판매되어 경제 논리에 왜곡된 체 주류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옥수수와 나』는 예술가들의 생산과 소비의 예술품과 소설이 물질화되어가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생산된 것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자본가에 의해서 강탈당하는 모습이며 또 자본가는 생산성이 있는 예술가를 조종하여 생산성(상품의 가치)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가치가 클수록 높아지지만 사용가치를 결정하고 생산하는 것은 결국 생산주체의 의지보다 자본가의 투자에 의한 자본논리로 결정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젝은 ‘믿음이 정신적이고 내밀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과정임을 말하고 있는데 작가 김영하는 『옥수수와 나』에서 소설가를 통하여 자본가의 물질화된 믿음의 객관성을 창의적인 자기 세계를 견지하는 것만이 물질화된 세계에 저항하는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영하, 『옥수수와 나』, 『이상 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12.

2. 단행본 및 논문

전경수, 『문화의 이해』, 일지사, 1994.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빈센트 B 라이치(권택영 역), 해체비평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0.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인간사랑, 2002.

토니 마이어스 지음, 박정수 옮김, 『지젝,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앨피, 2008.

S. 리먼 케넌, 『소설의 시학』. 최상규역, 예림기획, 2003.

장두영, <작품론, 옥수수와 나의 작품세계>, 『이상 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
사, 2012.

이미선, 『김영하의 초기 단편소설 연구』, 한국교원대, 2009.

이상우, 『김문수의 증묘 연구』, 한국문예비평학회, 2007.

권택영, 『잉여 쾌락의 시대』, 문예출판사, 2003.

슬라보예 지젝 지음, 박정수 옮김, 『HOWTOREAD라캉』 (주)웅진 싱크빅,
2011.

사라 케이 지음, 정현숙 옮김, 『슬라보예 지젝』, 경성대출판부, 2006.

슬라보예 지젝, 주은우 옮김,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한나래, 2013.

슬라보예 지젝, 주성우 옮김, 『멈춰라, 생각하라』, (주)미래엔, 2012.

【국문초록】

김영하의 소설, 『옥수수와 나』는 지젝의 ‘농담’을 작품의 서두와 끝에 이어 쓰고 있다. 『옥수수와 나』에서 옥수수와 닭의 관계는 식물성과 동물성의 대립이다. 옥수수는 에너지이고 세계는 에너지로 유지된다. 이때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는 리비도의 대체물이다. 닭은 상징계의 법으로서 자본의 허구를 표상한다. 닭은 거대한 입을 가진 자로서 자본가의 탐욕으로 볼 수 있다.

다국적 출판사의 자본의 논리에 따라 문화가 조직적으로 생산되는 현실은 출판사 사장에 의해 나타난다. 모든 일상이 거대자본에 편입되면서 개인 혹은 지역의 정체성은 변질된다. 현실은 자본의 현실(상징계)적 질서에 편입된 현실이다. 소설문화 역시 자본으로 생산된 상품으로 판매되어 경제 논리에 왜곡된 채 주류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옥수수와 나』는 예술가들의 생산과 소비의 예술품과 소설이 물질화되어가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젝은 ‘믿음이 정신적이고 내밀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과정임을 말하고 있는데 작가 김영하는 『옥수수와 나』에서 소설가를 통하여 자본가의 물질화된 믿음의 객관성을 창의적인 자기 세계를 견지하는 것만이 물질화된 세계에 저항하는 걸임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김영하, 『옥수수와 나』, 지젝, 농담

【Abstracts】

A Study of the novel 「CORN AND I 옥수수와 나」 by Young-Ha, Kim

Lee, sangwoo

「CORN AND I 옥수수와 나」 by Young-Ha, Kim is a novel with an embodiment about the famous 'joke' of the fool in the book of Zizek which philosophy is interpreted as a cultural aspect. These days, a cultural understanding becomes understanding of Zizek. This novel is an easy guide of Zizek's philosophy and it embody his philosophy in the novel.

Young-Ha, Kim says that a person who has an objective belief is the Symbolic person. He is the one who acts like the Other and knows very well about producing and reproducing the power. Moreover, he is a owner of the publishing company which suppresses the pure subject. Like an organized and detailed plot, he is a person who has actualized well about properties of modern capitalism under a thorough consideration of input and output. He criticized the realities of the writer which were suppressed by the condition and an ideological fantasy of the capitalism.

So, society has to have a fantasy for limiting the reality of society to maintain the world. For that, it becomes a factor for the suppression on entering the Real and the Imaginary. If a belief remains as psychical and subjective one, he will be regulated and might be endangered on an

irrational world. However, this kind of an irrational world can appear a selective subject by opposing and stirring up the power of the Other. It comes out as a vital factor of the life with a choice of the subject who is free from the custom and restriction. An irrational world is the Real. Moreover, it is not possible when the world is registered by the Other who shows the symbolical force of the law.

This is a criticism from Young-Ha, Kim about the reality stated below. The reality of the Other which is maximized with a symbolical effect is considering one capital ideology. Moreover, it is possible when father's law and language is identified while bringing in that place. The writer in psychical and subjective condition of belief could be played on reality. And the Third World, which can be a surrounding or outskirts country, is on the situation that could be used and exploited by the middle, and main capitalism where a capital power is produced and consumed.

Key word : Young-Ha Kim, 『Corn And I』, Zizek, joke

이 논문은 2014년 1월 12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